

해남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건설 총력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민선8기 과제 중점 추진

명현관 군수 "주요 현안사업, 누수없이 완료하도록 노력"

해남군은 2023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의 역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실과소별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무를 비롯해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는 해남군이 하반기 중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효율적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 해남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에 대해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5년연속 달성, 전남도내 유일 5년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재정집행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 최상위권을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민선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식으로 설정하고, 청정해남(E),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을 목표로 군정 장기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3,414억원 확보하면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누적판매액 5,000억원 돌파로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해남미소 및 로컬푸드 판매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기 자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개관과 땅끝곰길랜드 조성, 우수영 유수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북항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1년, 2023년의 상반기 동안 해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결과,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올해는 으뜸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와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간부공직자 청렴 챌린지 실시

우승희 군수 '청렴 메시지' 발표... 교육·콘서트 등 진행

영암군이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하나로 간부공직자 '청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 챌린지는 소통과 공감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영암군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 우승희 영암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직자들은, 평소 마음에 새기고 있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 당부 등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청렴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실천입니다'라는 청렴 메시지를 발표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챌린지로 모든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전



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전 직원 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청렴 편지 발송, 간부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 콘서트 등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도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전통시장 2곳 노후전선 정비

동부·종합수산시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목포시는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과 종합수산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유내배선공사 등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들 2개 시장에 대한 노후전선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공사에 들어가 9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구강이동진료차량 운행 '호응'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강이동진료차량 운행을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강이동진료차량 운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우리마을을 전담 주치의제의 일환으로 매우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운영한다.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춘 차량이 마을을 방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구강이동진료차량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살균세척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구강이동진료차량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치아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강이동진료차량과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깨달음의 빛, 청자' 웹소설 제작에 인공지능 활용한다

예산 절감 효과 '특독'·생성 이미지 개방 등 일거양득

강진군이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청자를 활용한 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제작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생성 이미지는 개방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웹소설 제작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미드저니(mid-journey)와 빙(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명령어

입력 후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강진 가우도 청자타워를 소재로 웹소설의 신규 표지 및 광고물을 제작하고 독자 이벤트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장보고 장군 캐릭터'를 생성하는 등, 매주 웹소설에 삽화를 첨부해 구독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AI 활용으로, 원고료 이외의 사비비가 소모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생성된 이미지는 '공공저작물 1유형'으로 개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부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한홍주 기자

완도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

20인 이하 거주 섬, 주택 개보수·마을 환경 정비 등 추진

완도군은 20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3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정책에 소외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별로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택 개보수(도배, 장판 등)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완도군에서는 금일 다량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이 올해 사업 대상지이며, 지난 9월 금일 다량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다.

금일 다량도는 금일읍에서 개인 선박을 통해, 30분을 이동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16호, 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봉사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와 마을 공동시설의 도배, 장판, 가전(TV, 냉장고) 수리 및 교체를 실시했다.

금일 다량도 주민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동시설이 노후화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어 고맙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군은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섬지역에서도 명문대에 갈 수 있다'

신안군, 이창균 교육정책 특별보좌관 순회특강



신안군은 지난 5월 초 신안 자은 출신 현 나주 영산고 이창균 교장을 신안군 교육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이후 임자고등학교에서 순회특강(2차)을 진행했다.

이창균 신안군 교육정책 특별보좌관은 지난 12일 임자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등을 강의하며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지역에서도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안군의 인재생애너지 햇빛연금 등의 정책과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한다면 인구소멸을 막는 것 외에도 선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압해중학교, 지명고등학교, 안좌고등학교, 도초고등학교 등을 찾아 순회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